



송하진 도지사는 16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을 찾아 다음달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 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사진은 송 지사와 전북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며 결의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

## “전북체육 위상 · 저력 보여주자”

송하진 도지사, 전주대 찾아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 격려 · 선전 당부... 감사의 인사도 전해

전북도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송하진 지사는 16일 전주대학교 체육관을 찾아 다음달 서울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전북 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하는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축구와 테니스, 농구, 자전거, 레슬링, 검도, 씨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등 전주 지역에서 마관 훈련이 한창인 일부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송 지사는 이날 모인 250여명의 선수·지도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전북체육의 위상을 높여달라”며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추석 연휴도 반납한 채 강도 높은 훈련에 임했던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송하진 지사는 “여기계신 선수와 지도자들의 꿈과 노력으로 지난해 우리 도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3위를 차지했다”며 “올해도 빛나는 활약으로 전북체육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막바지 훈련인만큼 부상에 더욱 유의하고 컨디션 조절에 힘써달라”며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전북체육인으로서의 위상과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펼쳐지며, 이 대회에 전북 선수단은 1600명(선수 1217명·임원 383명)이 출전한다. /장은성 기자

## 경기대 세터 김명관,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행

한국프로배구 남자신인 드래프트...43명 중 30명 프로행, 지명률 70%

경기대 남자배구팀 세터 김명관이 한국전력 유니폼을 입는다.

김명관은 16일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린 2019~2020 한국배구연맹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에 지명됐다.

전체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한국전력 장병철 감독은 큰 고민없이 김명관의 이름을 호명했다.

1997년생인 김명관은 195cm의 장신 세터다. 현재 V-리그 세터 중 김명관보다 큰 선수는 없다. 높은 타점에서의 토스와 블로킹이 강점이다.

올해 현대캐피탈배 해남대회에서는 세터상을 받았고, 인제대회에서는 서브상을 챙겼다. 지난해에는 AVC컵을 통해 대표팀을 경험했다.

KB손해보험은 한양대 레프트 홍상혁에게 지명권을 할애했다. 올해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했던 홍상혁은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 중 한 명으로 분류됐다. 대학배구리그 전반기에서는 190점(33세트)으로 득점 1위에 올랐다.

OK저축은행은 인하대 레프트 김응비를 뽑았고, 삼성화재는 흥익대 레프트 정성규를 선택

했다. 우리카드 신영철 감독은 남성고 리베로 장지원을 선택하는 과격 행보를 보였다.

홍콩 귀화 선수로 관심을 모은 경희대 알렉스는 1라운드 6순위로 대한항공의 지명을 받았다. 현대캐피탈은 중부대 2학년생인 최은석을 지명했다.

구단들은 적극적으로 지명에 나섰다. 2라운드까지 모든 팀들이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전력을 살찌웠다.

삼성화재는 7개 구단 중 가장 많은 6명을 뽑았다. 수련선수를 무려 4명이나 데려왔다. 한국전력, 현대캐피탈이 5명을 지명했고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은 4명씩을 택했다. 대한항공과 우리카드는 3명만을 보강했다.

전체 참가자 43명 중 30명(수련선수 9명 포함)이 프로행의 꿈을 이뤘다. 지명률은 70%로 지난해 60%보다 높았다. /뉴시스

## 프로농구 KCC, ‘터리픽12’ 출전

오늘부터 마카오에서

우승 상금 15만 달러

프로농구 전주 KCC와 서울 SK가 동아시아 4개국 팀들이 참가하는 2019 동아시아슈퍼리그 터리픽12에 출전한다.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마카오 탐석 멀티스포츠 파빌리온에서 국제농구연맹(FIBA) 공인 대회인 터리픽12가 열린다.

KBL 소속 KCC, SK를 비롯해 중국(CBA) 3팀, 일본(B리그) 4팀, 필리핀(PBA) 3팀까지 총 12팀이 참가한다.

조별리그와 준결승전, 결승전 등 총 16경기가 열린다. 3팀씩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갖고, 각 조 1위가 준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우승팀은 상금 15만 달러(약 1억7700만원), 준우승팀과 3위팀은 각각 10만 달러(약 1억1800만원), 5만 달러(약 5900만원)를 받는다. KBL에서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우승 상금이 각각 1억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4년 만에 코트로 돌아온 전창진(56) KCC 감독의 공식 복귀전이다.

전 감독은 2015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단순도박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농구월드컵에서 25년 만에 1승을 함께 일군 김선형, 최준용(이상 SK)이 출전을 앞두고 있으나 이정현(KCC)은 부상으로 결장한다.

KBL의 신장제한 제도가 사라진 가운데 의



국인선수들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이번 대회에서는 외국인선수 2명이 동시에 뛸 수 있다.

KCC는 KBL 경력이 있는 리온 윌리엄스, 제임스 메이스를 선발했지만 메이스는 개인 사정으로 합류가 불발됐다. 지난 시즌 함께 했던 마커스 킨이 일시 합류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애런 헤인즈가 견제한 SK는 새 얼굴인 센터 자필 워니(200cm)의 가능성을 점검한다.

KCC는 C조에서 우츠노미야 브렉스(일본), 저장 광샤 라이온스(중국)와 경쟁하고, A조의 SK는 블랙위더 엘리트(필리핀), 자바 제츠(일본)와 토너먼트 진출을 다툰다.

지난해에는 서울 삼성과 울산 현대모비스가 출전해 삼성이 3위에 올랐다. /뉴시스

## ‘멀티골 폭발’ 손흥민, BBC선정 ‘이주의 팀’ 선수로 선정

EPL 크리스탈 팰리스전서 맹활약

크리스탈 팰리스전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선정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16일(한국시간) 발표한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이 주의 팀에 손흥민을 포함했다.

손흥민은 1980년대 토트넘에서 활약한 공격수 출신으로 BBC에서 축구 분석을 맡고 있는 가스 크루스가 선정한 이 명단에서 타미 아브라함(첼시), 사디오 마네(리버풀)와 함께 공격진을 맡았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EPL 5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이번 시즌 첫 골과 두 번

째 골을 터뜨렸다.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OM)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크루스는 “나는 손흥민이 EPL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치른 모든 대회를 통틀어 가장 골을 많이 넣은 토트넘 선수다. 7경기에서 4골을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한편 미드필더 부문에는 무사 제네포(사우샘프턴),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토드 칸트웰(이상 노리치 시티)이 이름을 올렸다.

수비수에는 손흥민의 골을 도운 세르주 오리에(토트넘)를 비롯해 피카요 토모리(첼시), 해리 맥과이어(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앤드류 로버트슨(리버풀)이 뽑혔고 골키퍼는 다비드 데 헤아(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정됐다. /뉴시스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